제 4회 양성평등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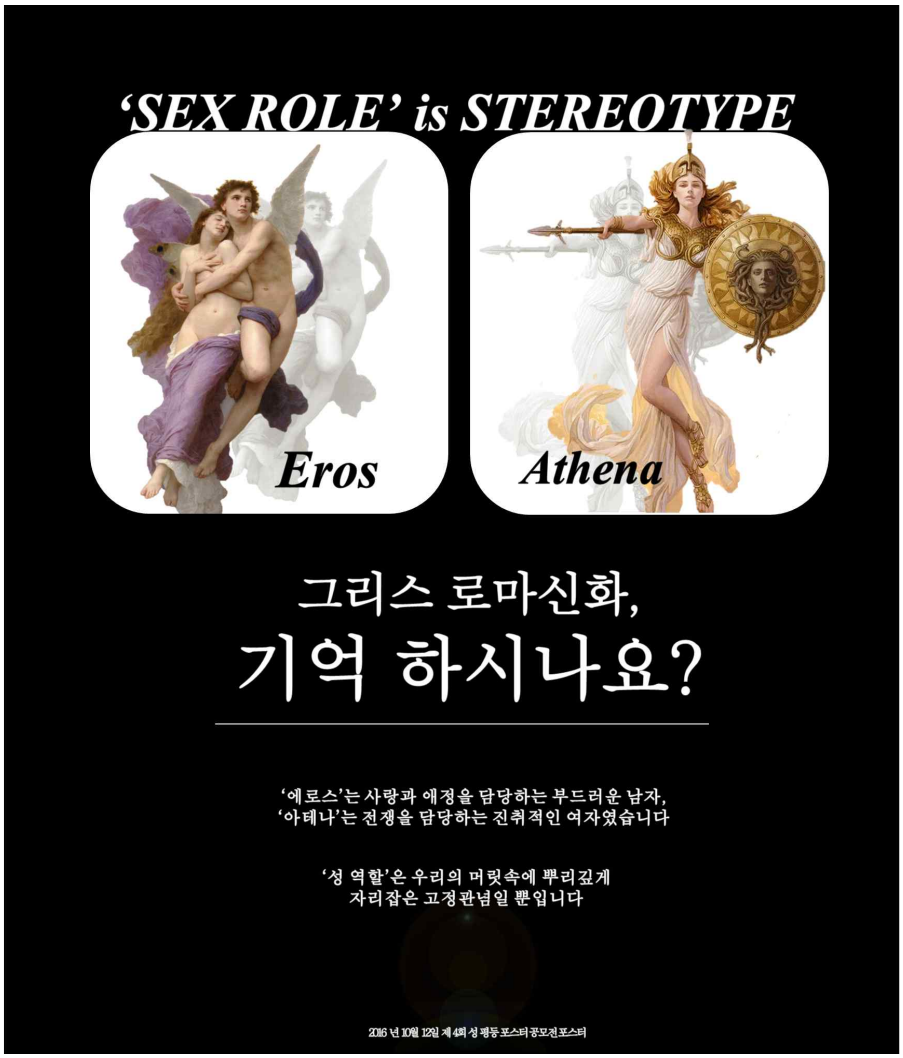
☘ 금상: 김보경(디자인·건축공학부)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성 평등이 많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포스터에 실루엣만 보고서는 아직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성 평등에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포스터로 표현 해 보았다.

✤ 은상: 이정인(디자인·건축공학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두가지 범주에 묶여 하고싶은 일 또는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여자는 조신하고 얌전한 직업을, 남자는 활동적이고 리더십있는 직업을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이 작품은 나의 가치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묶어두지 말자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았다.

☘ 은상: 박현호(산업경영학부)



'성 평등' 은 남녀가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세기는 남성이 간호사가 되고, 남성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여경이 도맡아 수행하며 직업에 있어서 양성성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는 자고로", "여자는 자고로"와 같이, 남녀의 역할 의무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은 남아있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것을 그리스 로마신화의 에로스와 아테나를 차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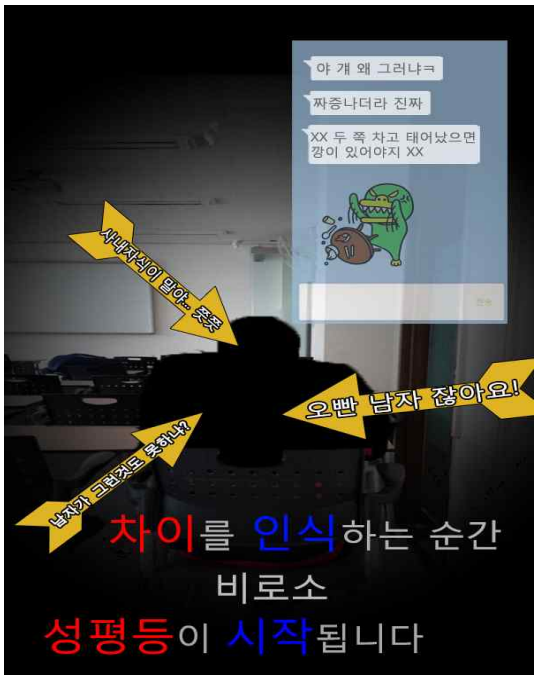
✤ 동상: 문성은(전기·전자·통신공학부)

흔히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할 때 성을 바탕으로 둔 색안경을 의미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터프해야지! 여자는 여자답게 조신해야지! 등과 같은 편견이란 색안경을 쓰고 성정체성을 단순하게 정의해버리고 단정지어버린다. 색안경을 벗으면, 남자든 여자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일 뿐, 성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동상: 이예든(기계공학부)

현대에 들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성을 갈라놓고,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단어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남녀를 뛰어넘어 고유성과 개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설령 '성' 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정의내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단어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포스터 안에 담습니다.

✤ 동상: 김태현(전기·전자·통신공학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관념만이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포스터는 남성으로 표현되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로 동성 간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